

삼각편대 막고 포백라인 뚫어라

■ 허정무호 내일 밤 우루과이전 필승 해법

한국 스트라이커 박주영



“지칠 줄 모르는 박주영 경계해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을 달성한 한국 대표팀의 다음 목표는 우루과이의 삼각 편대를 막고, 포백수비라인을 뚫는 것이다.

◇공포의 공격라인=26일 밤 11시(한국시간) 포트엘리자베스 벨스 만델라레이에서 치를 우루과이와 16강전은 디에고 포를란(31·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루이스 수아레스(23·아약스), 에딘손 카바니(23·팔레르모)로 편성된 우루과이 공격 라인을 어떻게 막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우루과이는 남미예선에서 28골을 터뜨려 브라질(33

다, 22일 멕시코와 조별리그 최후전에서는 결승골을 넣어 월드컵 첫 골을 신고했다.

카바니는 순간 스피드와 헤딩 능력이 좋다는 평가다. A매치에서 2골밖에 없었지만 공간을 침투해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능력이 훌륭한 대표팀 4백 라인이 결코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될 선수다.

◇본선 3경기 무실점 행진=우루과이는 23일(한국시간) 현재 이번 대회 본선 조별리그 세 경기를 치른 팀 중 유일하게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

우루과이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프랑스를 맞아 한

공격의 핵 포를란·수아레스·카바니 중원서 묶고 조별리그 무실점 철벽 수비진 뒷공간서 흔들어라

골, 칠레(32골)에 이어 세 번째로 화끈한 화력을 과시했다. 포를란과 수아레스, 그리고 카바니가 등장하기 전 삼각편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바스티안 아브레우(34·보타포고)가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인 17골을 합작하며 무서운 공격력을 자랑했다.

오스카르 타바레스 감독은 포를란과 수아레스를 투톱으로 세운 4-4-2 포메이션 또는 포를란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기용하고 수아레스와 184cm의 장신 공격수 카바니와 수아레스를 묶는 4-3-1-2 전술을 선호한다. 재공권이 좋은 한국을 맞아 4-3-1-2 전술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격의 핵 포를란에 관심이 집중된다.

망이 퇴장당해 10명이 싸우면서도 실점없이 버텼다. 중미의 강팀 멕시코에도 좀체 뚫리지 않는 포백 라인을 무기로 결국 1-0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디에고 루가노(페네르바흐체)와 알바로 케레이라(포르투)가 예선 세 경기 연속 포백 라인을 지켰으며 호르헤 푸실레(포르투), 디에고 고딘(비아 레알), 마우리시오 빅토리오(우니베르시타드 데 칠레)가 교대로 다른 두 자리를 맡았다.

루가노와 고딘, 빅토리오 등이 중앙을 담당하고 케레이라와 푸실레 등이 측면 수비를 맡는다. 키 188cm에 몸무게 84kg의 장신 중앙수비수인 루가노는 수비 라인을 이끄는 핵심 선수다.

올해 30살로 유럽 무대와 국제대회에서 뒀던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큰 키와 높은 점프력을 이용한 공중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거친 태클과 대인방어에도 뛰어난 한국 공격수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루가노는 수비수이면서도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헤딩슛을 넣기도 하고 흘러나온 볼을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나 한국 수비수에게도 경계 대상이다.

수비력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지만 남미 선수답게 다혈질이라 거친 말투와 태클로 경고를 많이 받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공격라인이 빠른 발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 들며 신경을 자극하면 얼마든지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말이 퇴장당해 10명이 싸우면서도 실점없이 버텼다. 중미의 강팀 멕시코에도 좀체 뚫리지 않는 포백 라인을 무기로 결국 1-0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디에고 루가노(페네르바흐체)와 알바로 케레이라(포르투)가 예선 세 경기 연속 포백 라인을 지켰으며 호르헤 푸실레(포르투), 디에고 고딘(비아 레알), 마우리시오 빅토리오(우니베르시타드 데 칠레)가 교대로 다른 두 자리를 맡았다.

루가노와 고딘, 빅토리오 등이 중앙을 담당하고 케레이라와 푸실레 등이 측면 수비를 맡는다. 키 188cm에 몸무게 84kg의 장신 중앙수비수인 루가노는 수비 라인을 이끄는 핵심 선수다.

올해 30살로 유럽 무대와 국제대회에서 뒀던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큰 키와 높은 점프력을 이용한 공중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거친 태클과 대인방어에도 뛰어난 한국 공격수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루가노는 수비수이면서도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헤딩슛을 넣기도 하고 흘러나온 볼을 처리하는 능력도 뛰어나 한국 수비수에게도 경계 대상이다.

수비력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지만 남미 선수답게 다혈질이라 거친 말투와 태클로 경고를 많이 받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공격라인이 빠른 발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 들며 신경을 자극하면 얼마든지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루과이 스트라이커 디에고 포를란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루과이 언론 “한국 세트피스 기회 막아라”

한국과 16강에서 맞붙게 될 우루과이 언론은 박주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최대 일간지인 엘 페이스는 인터넷판에서 “이제 총력을 다해 한국을 공격할 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팀의 전력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은 1986년 이후 한 차례도 빠짐 없이 월드컵에 출전했고 2002년에는 논란 속에 4강까지 올랐다”며 “아시아팀들의 축구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전술과 선수들을 진화시켜 다른 아시아팀들보다 한 단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상대팀을 교란시키는 공 컨트롤과 빠른 공격으로 측면 수비의 약점을 만회하고 있다”며 특히 “박주영은 위협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선수”라고 말했다.

또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한국 미드필더들은 끊임없이 포지션을 바꿔가며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능력을 보여줬으며 공을 잡을 때마다 리듬 전환에 탁월했다”며 “이러한 특징들이 위협적인 역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16강에 만족할 수 없다”

“지금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성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기쁨을 맛봤던 박지성으로서 16강 진출만으로는 아직 성이 차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거스 허딩크 감독이 “아직 승리에 배가 고프다”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박지성은 24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 올림피아 파크 스타디움에서 회복훈련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16강 진출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만족하지 않는다. 남은 경기들이 모두 중요하고 어려운 경기다. 전력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대표팀의 막내급 선수로 한국 축구의 4강 신화를 경험했던 박지성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선 주장을 맡아 8년 전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한국 축구의 특징은 다른 팀보다 많이 뛰는 것이다. 조별리그 세 경기를 치렀다고 그런 특징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체력 부족에 대한 걱정을 일축했다.

한국의 16강 상대인 우루과이는 조별리그에서 프랑스(0-0무), 남아프리카공화국(3-0승), 멕시코(1-0)와 차례로 경기를 치르면서 4골 무실점의 탄탄한 전력을 과시했다.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기성용 선수 1000만원 쾌척

남아공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광주 출신 기성용(21·셀틱)이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1000만원을 쾌척하기로 했다.

신입 광주 상무 프로축구 단장은 기성용이 시민주 공모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1000만 원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24일 밝혔다. 기성용은 남아공으로 떠나기 전 아버지인 기영욱(54·광주시축구협회장)씨에게 “16강에 진출하면 시민주 공모에 참여해 1000만원을 내겠다”고 약속했으며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약속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 상무소각장 영향조사와 전망

광주시가 지난해 ‘상무소각장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와 함께 포항공단 환경대기 분야 전문 석 교수팀에게 맡긴 ‘상무소각장 환경영향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 주민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영향권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 주민에게는 10년 간 난방비 및 복지센터 건립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예초 영향권을 반경 300m로 예상한 광주시는 그 범위 내 4개 아파트 단지 2224세대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용역결과 영향권이 상무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반경 1.3km로 확대되면서 지원해야 할 대상이 14개 단지 9987세대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확한 산정은 어렵지만 이에 따라 수 백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환경대기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로 알려진 장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부정하고 나선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광주시와 용역팀 간 ‘쟁점’=광주시는 주민협의체와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종보고서 납품때까지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기로 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

중금속 영향권 300m 예상한 광주시 당혹 주민지원 8천세대 늘어 예산 수백억 부담

다. 용역결과 상무소각장의 영향권이 1.3km라고 제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장 교수팀이 상무소각장의 영향권을 조사하면서 상무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의 종류나 그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사례로 장 교수팀이 중금속·다이옥신 등을 측정할 상무지구 내 5곳 중 소각장 남측 경계에서의 측정 결과 모두 국내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소각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도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는 데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측정지점의 자동차 매연이나

그 외 대기오염물질들로 인해 검출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장 교수팀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운석 교수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에게 이 같은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이번 용역의 핵심은 영향권을 밝히는 것으로, 법규에서 정한 300m는 편의주의 산출물일뿐 소각장 배출물질의 영향 범위는 더 광범위하다는 것이 장 교수의 주장이다.

장 교수는 “이산화질소를 모델로 실험했으나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등 다른 물질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도 영향을 미

칠 수는 있지만 이 부분까지 감안하고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상무지구 주민 ‘갈등’ 예고=주민들은 광주시가 이 같은 용역결과를 즉각 수용해 주민지원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장 교수팀에게 보고서 수정보완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주민지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민협의체 표찬 위원장은 “주민협의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권 내 주민들에게 소각장이 운영된 지난 10년 동안의 난방비를 즉각 지원하고, 상무지구 내 적절한 장소에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계속해

서 용역결과 수용을 거부할 경우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항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시는 현재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의 규모는 25억원 정도로, 영향권 범위가 이렇게 확대될 경우 시 재정으로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일단 용역결과 수정을 요구하고 주민지원은 나중 문제”라고 선을 그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소각장이 상무지구에 들어서면서 계속돼왔던 광주시와 상무지구 주민과의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상무소각장은 743억 원이 투입돼 2000년 9월 준공, 1년 뒤 가동에 들어갔으나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에 따른 대기 오염과 악취 등을 이유로 설치무효 소송과 가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협의체 구성이 6년 동안 지연돼 지난 2008년 초야 출범하는 등 소각장 피해와 그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대표 9명과 서구의원 3명, 전문가 2명 등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주민감시단(3명)을 운영해 쓰레기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검출량과 침출수 및 바닥재 처리상황 등 쓰레기 처리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